

遺言

후어—한 방에 遺言은 소리없는 입놀림.

——바다에 眞珠캐러 갔다는 아들
海女와 사랑을 속삭인다는 말아들,
이밤에사 돌아오나 내다봐라——

平生 외로운 아버지의 殞命、

외딴집에 개가 짖고,
휘양찬 달이 문살에 흐르는밤。

一九三七、十月二十四日、

유언

휘—한 방에 유언은 소리없는 입놀림.

——바다에 진주 캐러 갔다는 아들
해녀와 사랑을 속삭인다는 말아들
이밤에사 돌아오나 내다 봐라——

평생 외로운 아버지의 운명、

외딴집에 개가 짖고,
휘양찬 달이 문살에 흐르는 밤.

1937. 10. 24.